

한·일 불교교류 32주년 기념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등에 힘을 모은 한·일 불교계가 교류 32년을 맞아 종교간 화합과 평화 구축에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와 일한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미야바시 쇼겐)는 11월 14~16일 제32회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서울 관문사 등에서 개최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매년 5월 경 개최됐으나 올해는 동일본 대지진 및 우면산 수해 피해로 인해 11월로 연기·개최됐다.

양국 불교계는 14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환영만찬을 연데 이어 15일 서울 천대종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본행사를 진행하고 종교화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제32회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범회는 그동안 진행됐던 양국 의식 봉행 대신 (반야심경) 봉독과 양국 회장 스님의 헌화, 육법공양 등 약식으로 진행됐다.

자승 스님은 대회사에서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양국 불교계는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다시 인식 할 수 있었다"며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는 종교간 갈등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 공존과 상생이라는 불교정신으로 갈등을 아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 대회는 불교를 통한 양국의 문화교류와 갈등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일한 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 미야바시 쇼겐 스님께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해소 방법을 모색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공유하는 만남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미야바시 쇼겐 스님은 "지난 천재 지진으로 인해 국가와 인종을 넘어 모든 대중이 화합 공동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불교의 화합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에서 "대회를 계기로 세계인들이 평화와 화합이란 하나의 바다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 불교계 대표단은 본행사 이후 '종교간 화합문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16일 제30회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서 여주 조계종 신록사에 건립한 인류화합공

생기원비를 참배하고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해 교류행사를 이어갔다. 교류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 자승 스님과 이사장 정산 스님, 부회장 인공·홍파 스님과 혜정 정사, 부이사장 남정 스님, 조계종 균종교구장 자광 스님,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 일면 스님, 최광식 문화관광부장관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한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 미야바시 쇼겐 스님, 이사장 니시 오카 료오 스님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최광식 문화관광부장관이 참석해 지난 대회에 불참한 유인촌 전 문화관광부장관과 대조를 보였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불교 인적 네트워크 하나로 엮는다

조계종 각계 150여 인사로 내년 1월 31일 불교포럼 구성

사회 각 분야에서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조계종 정책 자문을 비롯한 불교의 사회적 실천행을 전개할 '불교포럼'(가칭)이 추진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불교포럼' 추진위원회 위촉 및 발족식을 개최했다.

불교포럼 추진위원회는 크게 범조 행정부 경제 교육 등 14개 분야로 분야별 1명의 지도위원을 중심

으로 집행위원들은 구성한다. 불교포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계를 망라한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돼 2012년 1월 31일 발족해 분야별 모임 워크숍 세미나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불교 인적 네트워크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발족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위문 소개 및 경과보고 위촉장 수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불교포럼 추진위원 명단

지도위원(분야)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공기관),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법조), 김장실 예술의전당 사장(문화예술), 김종규 삼성출판사 명예회장(출판), 김희옥 동국대학교 총장(교육),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청와대),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경제), 박진열 한국일보 사장(언론),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행정부), 성상철 한국병원협회장(의료), 이기흥 대한수영연맹회장(체육), 탤런트 이정길 씨(대중문화), 이택순 경찰청장(경찰), 최용민 국방부 특별검열단장·육군중장(군)

집행 지도위원
김종호 문화일보 논설위원, 하복동 동국대 석좌교수.

집행위원
권범선 동국대일산병원 재활의학과장(보건 의료), 김봉석 변호사(법조), 김혜옥 방송인(대중 문화), 박기연 조계종 총무원장 특별보좌관(총괄), 박상관 동국대 대외협력실장(교육), 성기홍 대한체육진흥공단 본부장(체육), 소중섭 시사저널 편집장(언론), 조문배 불교방송 경제부 기자(경제), 임병태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공공기관), 윤재웅 동국대 국어교육과 교수(교육), 한명우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행정관(청와대)

눈으로 보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 문화재 ⑥

동과 서의 두 장정이 만나 세운 탑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忠州 塔坪里 七層石塔) 국보 제6호 통일신라



충북 충주는 중원문화권 중심도시로 국도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신라시대에는 중원경, 고구려 때에는 국원성으로 불렸다.

충주에 자리 잡은 탑평리7층석탑은 국보 제6호로 현존하는 신라시대 석탑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높으며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중앙부에 위치해 오래 전부터 중앙탑이라 불렸다. 8세기 후반 함경도까지 영토를 차지한 통일신라 원성왕(785~798)은 신라 영토의 중앙 지점을 알아보기 위해 국토의 남과 북 끝에서 건강한 남자를 동시에 출발시켜 만난 지점(충주 시금면)에 이 탑을 세우고 중앙임을 표시했다는 전설이 있다.

탑은 2단의 기단(基壇) 위에 7층의 탑신(塔身)을 올린 모습이다.

높은 탑신을 받치기 위해 넓게 시작되는 기단은 각 면마다 여러 개의 기둥 모양을 새겨 놓

았다. 탑 정상의 머리장식은 신라 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이종으로 포개어진 똑같은 모양의 받침돌이 머리장식을 받쳐주고 있다. 기단에서의 기둥조각 배치, 탑신의 몸돌과 지붕돌의 짜임수법으로 보아 통일신라 후기인 8세기 후반에 세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1917년 탑을 보수할 때 6층 몸돌과 기단 밑에서 사리장치와 유물이 발견됐다. 특히 6층 몸돌에서 발견된 거울이 고려시대 것으로 밝혀져 탑 조성 이후 고려시대에 와서 2차 봉안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문화재청장 맞아 민원 쏟아내

문화재 개보수 전담반 구성, 문화재별 균형 예산 등 요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김찬 문화재청장(사진)에게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사찰문화재 관리 등 각고의 노력을 주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14일 예방한 김찬 문화재청장에게 "불교문화재 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 보존과 문화 창달에 문화재청이 더욱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함께 자리한 문화재위원 장석 스님은 "문화재 70%가 불교문화재인 상황에서 문화재청에 이를 전담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사찰 문화재과를 비롯해 문화재 개보수 전담반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화부장 김찬은 "문화재 예산과 공병 문화재 예산의 균형성을 지켜 달라"고 주문했다. 김희실장 정만 스님은 "연등회 국가지정문화재 추진이 어렵다. 중국은 발 빠르게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찬 문화재 청장은 "충분히 수렴하겠다. 특히 연등회 문제는 유념하고 있으며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노덕현 기자

종단 잘못됐는데 다들 침묵한다

별빈 당한 성호 스님, 총무원청사 앞 1인 시위 나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승적부가 거짓이라며 사회법에 제소해 별빈 당한 성호 스님(前 금당사 주지)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 우정국공원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성호 스님은 11월 18일 우정국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스님은 "중정예하를 비롯해 일로외장, 호계원장, 중앙총회의장 등 총무원장의 잘못을 경책할 위치에 있는 스님들이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다. 참담한 현실을 혁파하고 종단 운영을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되고자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승적 조작, 비구계 미수 지자의 종무직 배제 ▷관악산 연주

암, 서울 화계사·수곡사, 설악산 봉정암, 낙산사 흥련암 등의 직역사찰 지정 ▷사바라이 파계승의 산문 출송 ▷종단내 폭력행위 근절 ▷실천 불교전국승가회 해체 ▷분규 별빈자 사면복권 ▷원로회의 및 중앙총회 해산 ▷명예연로의원 중 중정 추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처벌 ▷본인에 대한 징계 철폐 등 11가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이날 성호 스님은 "나는 조계종단으로부터 승려 자격을 박탈당했으나 대한민국 법원을 통한 징계효력 정지 가치분과 징계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징계무효를 확정 받은 국법으로 보호받는 조계종 승려이다"라



고 강조했다. 한편, 성호 스님은 조계종과 경찰 등을 상대로 총10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동섭 기자 cestana@gmail.com

박규원 만평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2학년도 신·편(학점은행제)입생 모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어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 되어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여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입학, 수료과정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상주권공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 1~7	30
각배	각배과정	목	오후 1~7	30
영산	영산과정	금	오후 1~7	30
불교무용(작법)	바라춤/나비춤	수	오후 1~7	30
불교의식(식기)	시련/대령/관육상단/영단	월	오후 1~7	30
불교의식(이론)	불교의식	화	오후 1~4	재학생 졸업생

학점은행제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영산재의례절차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 1~7	30
범패실습I	각배과정	목	오후 1~7	30
영산재의례절차II	영산과정	금	오후 1~7	30
작법실습	작법과정	수	오후 1~7	30
영산재의불교 예술적특징	불교음악&무용	화	오후 1~4	30

편입학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7	약간명

- **응시자격**
 ◆ 수료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교역자 및 일반인
 ◆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기 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수료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증명서(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원서대 및 전형료 50,000원
 ◆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증명서(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편입학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증명서(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 **전형일정** : 2012년 1월 16일 ~ 2월 24일
-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 본 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접수
- **합격자발표** :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특 전**
 1. 재학생 중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종단이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합동등도 수계산림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2.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자격을 부여 (단, 입학시 승려에 한하며 재학중 출가자는 제외)
 4.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 인정된 전수생 지정
 5.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선발

옥천범음대학 2011년 동계방학 특강안내

과목	생전예수재	법 고
교수	마일운 스님 (영산재보존회 회장)	이기봉 스님 (옥천범음대 학장)
기간	12월 19일~ 2012년 1월 17일(5주) (매주 월요일, 수요일)	12월 20일~ 2012년 1월 18일(5주) (매주 화요일)
시간	오후 3시~5시 (2시간)	오후 1시~5시 (4시간)

※ 과목별 수업요일과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특강 수강신청서 1부 (행정실)

접수문의 : 02) 392-3234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학장이기봉합장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